



NH투자증권, 농촌마을 전기레인지 지원
NH투자증권은 지난 5일 충남 청양군 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전기레인지 110대를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이강신 NH투자증권 수석부사장, 김동곤 청양군수, 박승일 청양노인회장이 마을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흡연소핑 초등학교에 코로나 예방물품 기부

책상 가림막, 핸드 드라이기 등

흡연소핑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본사 인근에 있는 서울 강서구 공진초등학교에 관련 물품을 전달했다.

흡연소핑은 지난 5월 공진초등학교 인근 미술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6월 초로 개학이 연기된 공진초등학교에 책상 가림막, 화장실 핸드 드라이기, 보행형 습식 바닥 청소기 등 약 30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흡연소핑 사회공헌팀은 공진초교와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말 분비물 확산을 예방해주는 '책상 가림막'을 모든 교실의 책상에 각각



흡연소핑이 기부한 책상 가림막이 설치된 강서구 공진초등학교의 한 교실.

설치하고 손씻기를 마친 후 손을 잘 건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화장실 핸드 드라이기를 전체 화장실에 비치했다. 또 보행형 습식 바닥 청소기도 지원했다. /김승호 기자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UN SDGs 협회 자문위원 위촉
비와이엔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왼쪽)이 유엔 경제사회 회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인 'UN SDGs 협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7일 밝혔다. 강 회장은 모든 경영 활동에 SDGs를 강조하며 국내에서 손꼽히는 지속가능 경영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번 위촉을 시작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국내 패션 산업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참여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블랙야크



빙그레,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에 3억 기부
빙그레는 대한적십자사와 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빙그레는 자사 대표 제품 바나나맛우유의 판매 수익 중 일부를 적립해 총 3억 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을 통해 질병, 실직, 사고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정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빙그레



박착희 이대목동병원 교직원, 근로자의 날 대통령 표창
박착희 이대목동병원 교직원은 지난 6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 '2020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박 교직원은 지난 2019년 보건관리자로 일하며 신규직원 채용검진, 직원검진, 유해화학물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직원 안전과 건강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대목동병원

이사·감사 지위를 취득하려면



**김 다 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서는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해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그 선임에 동의한다면,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 없이 곧바로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상법은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외의 취임 조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과거 판례는,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이사·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 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해 바로 피선임자가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인 임용계약의 체결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해야 비로소 피선임자가 이사·감사의 지위에 취임

하여 이사·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됐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피선임자에게 이사·감사 취임의 청약을 하지 않는 한 피선임자의 이사·감사 취임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이사·감사는 회사에 대해 이사·감사 선임등기가 지연됨을 이유로 이사·감사 변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게 된다.

이후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해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 이사·감사의 선임은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지적한 것처럼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아 피선임자가 이사로서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면 주주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 기관인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는데, 감사의 취임 여부를 감사의 대상인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비취 부적절하다. 결국,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 선임결의가 이뤄지고, 피선임자가 승낙했다면 피선임자는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기보, 한기대·선문대와 '기술사업화 지원' 협약

'U-TECH밸리' 구축 업무협약 중부 우수기술 창업 활성화 기대

기술보증기금은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선문대와 '대학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U-TECH밸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U-TECH밸리 협약 대학은 총 70개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중부권 거점대학인 한기대, 선문대와의 협약으로 TECH밸리 플랫폼을 통한 중부지역 우수기술 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한기대와 선문대는 대학 내 우수 창업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받은 기업에 3년간 최대 30억원까지 보증한도를 제공한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윤기용 선문대 산학협력단장, 김명준 기보 이사, 이규만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컨설팅, 기술이전, IPO 지원 등 비금융까지 복합 지원해 우수 전문

인력의 성공 창업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인사

◆국립경상대학교 보직 인사 △교학부총장 김중오 공과대학 건축도시토목공학부 △연구본부장 정우건 해양과학기술대학 해양식품생명과학 △대학원장 박기훈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화학식품공학과 △학생처장 안미정 약학대학 약학과 △기획처장 김상민 농업생명과학대학 애그로시스템공학부 △연구본부장 강상수 의과대학 의학과 △입학본부장 이광호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무부처장 장만호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학생부처장 하재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기획부처장 강창근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연구본부장 강양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산학본부장 김형범 공과대학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 △대외협력본부장 최인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입학본부장 이동업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대학원부원장 정도희 법과대학 법학과 △도서관장 기근도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인재개발원장 이지영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산림과학부 △교육정보전산원장 김민기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과학과 △공공실험실습관장 최성길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화학식품공학과 △국제어학원장 이석광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과학교육원장 전병균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신문방송사주간 겸 출판부장 박현균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차춘남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부 △국어문화원장 김민국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미리교육원장 손정우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부장·현 제이에스더컴퍼니 대표이사)씨 모친상 = 6일 오후 7시44분, 전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층 천실, 발인 9일 오전 8시. ☎ 063-250-1439
▲ 유덕은씨 별세, 이원주(KNN 보도국 영상팀 차장)씨 장인상 = 7일 오전 5시, 부산서호병원 장례식장 특 3호실, 발인 9일 오전 6시. ☎ 051-949-1024
▲ 강옥순씨 별세, 기남형(에어부산 전략커뮤니케이션실장)씨 장모상 = 7일 오전 3시, 부산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7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 051-711-4400
▲ 권영빈씨 별세, 권오형(삼덕회계법인 대표·경희대 총동문회장)·권오정·권오선 권오상·권혜진씨 부친상 = 7일 오전 7시 4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20분. ☎ 02-2258-5940

부음

▲ 양상순씨 별세, 손정태(전 전북CBS 본